

# 다니엘 케이 다코 박사, 감옥서신, 제25차, 연합을 위한 중보, 에베소서 3장

© 2024 댄 다코와 테드 힐드브란트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5, 연합을 위한 중보, 에베소서 3장입니다

. 감옥 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몇 강의에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서론을 살펴보고 제가 숨가쁘게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원하고 표현한 것의 일부를 다루었습니다. 2장에서 몇 가지 주요 특징을 논의했고, 그 대화를 기억한다면 그 장에서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이전의 상태를 상기시키는지에 대해 당신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이전의 과거에는 실제로 이 세상의 정욕, 공중의 권세의 왕자, 그리고 육체에 복종했다고 충분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그 본성상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사람은 엄격한 심판, 가혹한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심판을 받을 만하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는 2장 4절에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사랑과 은혜로 다가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많은 교리적 진술의 일부가 될 심오한 진술을 합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의 본질을 확립한 후, 청중이 구원이 전적으로 나와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원의 사회학적 부분을 강조하고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공동체 감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이방인에게 귀속되는 유대인 고정관념을 보여주었고, 현실적으로 이방인에게 그들의 과거가 어떻게 묘사될지 상기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강의의 그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저는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된 그 일체성 안에서 어떻게 주의를 끌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거처를 짓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입니다. 3장에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었지만 지금은 알려진 신비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 신비를 사람들에게 실제로 관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직업,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특권을 강조했습니다. 신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연합이라는 주제를 구축하면서 잠시 멈췄다가 3장 14절에서 계속 진행하여 중재를 시작했거나,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의도와 교회를 위해 중재할 때 다루는 영역을 보여주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기도문을 쓸 때, 그의 의도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회중에게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문을 쓰는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도로 하나님께 소통할 필요성에 대해 지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중보에서 그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먼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때때로 축복의 형태로 그들을 축복하여,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상황에서 살아나기를 구합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가 지난 강의를 끝낸 곳을 검토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이리므로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름을 받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영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거하시게 하시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능력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특정 기도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마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서 교회가 수동태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조금 풀어보죠. 허락해 달라는 청원 바울이 편지 를 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능력이 영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수단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할 영역이나 장소는 그들의 내면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잠깐 멈추어 이 편지에서 다루었던 몇 가지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새롭게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여러 차원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둠의 권세와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는 인지적 차원을 언급하고 때때로 그들이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몇 가지 사실을 알았다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심장, 그들의 감정의 자리, 그리고 때때로 그들의 감정과 도덕적 추론의 중심, 그들의 심장이 그들이 그들의 기독교적 삶을 인식하는 방식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적 삶이나 기독교는 교회에 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삶의 많은 측면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비참한 상태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은 사람을 악의 세력의 지배, 매우 나쁜 추론과 도덕적 선택, 그들을 파괴로 이끌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에서 구하고, 그들을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인도하여, 신이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일하는 영적 대리인이 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전체가 그런 면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이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성령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이것을 주목하세요: 만약 당신이 카리스마나 오순절적 배경에서 왔다면, 성령은 당신이 터져 나와 방언을 말하거나, 당신이 가진 특정한 영적 은사를 과시하거나, 당신이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덜 열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권능으로 강해져서 그들의 내면이 힘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회복력과 힘을 갖게 되어 그들의 그리스도인 삶이 마음의 어떤 빈 공간에서 펼쳐지지 않고 권능의 감각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저는 한 가지 특별한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직감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그렇게 느낀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에 직면할 수 있는 활력과 자신감을 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그들이 주변의 종교적 경쟁,

그들을 둘러싼 도덕적 타락, 어려운 선택,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세상의 나머지가 선이라고 부르는 것에 탐닉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소외감 때문에 그 분야에서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약함의 때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말했고, 수동태로 표현하여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얻거나 획득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것이고, 그것이 영적 대행의 도입이 중요해지는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 이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적인 존재 안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와우. 그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7절.

다시 한 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거처를 찾을 수 있도록 내면의 차원을 관찰하십시오. 마음이 소모되거나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거주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거처를 찾으신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4장부터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 중 하나는 개인적 책임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매우 매우 칼빈주의적 신학적 틀처럼 들린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문학 사회에서 저는 이런 종류의 주제로 동료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반대편에 있는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개인의 책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자신을 활용하고, 자신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거처를 찾을 수 있게 하시기를. 첫 번째는 여기,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속사람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내부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4장에도달했을 때, 이제 외부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의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는 제가 콜로새서를 살펴볼 때 이 편지 시리즈에서 언급한 두 가지 핵심 언어를 사용하여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는 식물학적 또는 농업적 언어이고, 하나는 건축적 언어입니다. 그것들은 농업적 언어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은 무언가가 자라고 있는 비옥한 땅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비옥한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매우 깊이 내릴 수 있고 바위나 장애물에 의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식물은 토양의 특성과 농업 목적으로 경작되고 준비된 방식 때문에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사랑이 그들이 자랄 모체, 플랫폼, 장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정신으로 성장한다면 상상해 보세요. 거의 항상 그렇죠.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의심할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못되게 대할까요? 긍정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할까요?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들이 우리의 가장 큰 이익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우리는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 정당화와 독선에 빠질까요? 그들이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의 기초가 펼쳐질 것입니다.

건축 언어를 사용하여 그는 집을 짓는 측면에서 기초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견고한 기초가 구조의 무결성을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데 있어 성장함에 따라 어떤 폭풍도 그들을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위치에 있음을 알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폭풍의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4장에서 다시 다룰 테니까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도 그들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지진대에 살았다면 튼튼한 기초가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점토로 집을 짓고 때로는 기초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제3세계 국가에서 살았다면, 열대성 비가 몇 시간 더 내리고 기초가 약해서 문자 그대로 집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이 그룹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고, 그들이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확립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농업과 건축의 은유는 모두 그의 의도와 그가 그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위해 기도할 때 그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 요청으로 돌아와서, 그는 그들이 강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이미 말한 것에서 나아가, 그는 그들이 폭, 길이, 깊이를 집단적으로 파악하도록 강화되기를 기도하고,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강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 그들에게 필요한 힘, 건축 및 식물학적 언어를 사용했지만, 여기서 그는 들어와서 지금은 그들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폭, 길이, 높이, 깊이인지 파악하도록 강화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스어에서 그 표현에는 목적어가 없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고, 따라서 번역자들이 우회하여 그것이 사랑을 가리킬 수 있다고 말할 때, 그들은 접속사 끝에 있는 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 사랑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너비, 길이, 높이, 깊이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가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당신이 뿌리를 내리고 실제로 사랑에 자리 잡았다면, 그는 또한 당신이 받은 사랑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만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의 첫 장부터 지식이 부족한 곳, 즉 가까운 구원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에 대해 염려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의 잠재력에 이르지 못하는 평범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그들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강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의 열정의 미덕입니다.

애정을 보여주는 미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감정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말할 때, 당신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잘 작동하고 인정받을 때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안정감을 찾습니다.

우리는 쾌감을 느낀다.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단지 공동체에서 사랑의 정신으로 공유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사랑의 크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장에서 신의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사랑이 모든 지식을 능가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사랑의 모든 측면을 알 수 있는 것을 저장할 만큼 윗층에 충분한 하드 드라이브가 없습니다.

정말 광대해요. 정말 깊어요. 정말 훌륭해요.

때때로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깊이 돌보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걷습니다.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걷고, 외로움 속에서 사는 섬에 갇힌 사람처럼 걷습니다.

사실, 사실, 우리는 깊이, 깊이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들의 공간에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할 때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저는 종종 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관해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밤에 자게 하고 싶다고 말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밤에 많이 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싶다면, 저는 일종독자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할 시간이 필요하고, 저는 “당신은 자세요, 저는 밤에 아이들을 돌볼게”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밤에 그들을 대신해서 무엇을 하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의 음식을 올바른 장소에 가져다 주려고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제가 밤에 들어와서 필요하다면 두 번째 기저귀를 입히고 필요한 모든 물건을 놓을 때 그들이 깨어나기를 기대하기 직전에 모릅니다.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배고프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이가 알아야 할 전부였습니다. 항상 내 두 딸이 서로 상의하듯이 사용하던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아이들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엄마를 깨우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궁금해, 누가 이걸 가르쳤을까? 아빠. 아빠. 아빠.

그것이 그들이 알아야 할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말했습니다. 무거움, 외로움,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느낌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들이 채워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네 차원의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입니다.

제가 방금 당신의 기억 구절을 망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으로 그것을 암기하기 때문에 대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어떤 견해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너비, 길이, 높이, 깊이는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을 가리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힘을 불러일으키는 마법의 시험과 마법의 패튼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실제로 신의 힘의 광대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들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랑을 제공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리스어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배경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글썄요, 그리스어에서 이 특정 줄에 대한 직접 목적어가 없는 것도 이 특정 관점이 실제로 우리를 심각한 의문으로 이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걸려 있다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쓰고 주장하는지 아는 것은 알려졌을 것이고, 공급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정 견해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목적어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에베소서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구원의 신비를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당신의 성경 번역본 중에 실제로 그런 내용을 말한 것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영어로 성경을 읽을 때는 거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내용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이게 뜨거운 토론이에요. 논평에서 이에 대해 쓴 글이 두 페이지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이 특정 대화에 10 페이지까지 할애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바로 이 문단에는 그런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학자들이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그 특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언급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언급은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쓸 때,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의 광대함과 포괄적인 본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특정 구절 이전의 구절들이 신비와 신비의 위대함과 신비에 대한 지식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느 정도는, 바울이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매우 직접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말한 것, 심지어 문장의 두 번째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언급하는 대상을 제공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ESV에서 읽는 것처럼, 여러분은 실제로 18절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읽을 것입니다 .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모든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 ESV는 좋은 사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것을 공급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공급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구절의 직접적인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이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 단어에서 대상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을 집어 들고 이 네 가지 차원이 모두 신비, 지혜, 신의 힘을 가리킨다고 말한다면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저 지속적인 대화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방금 살펴본 ESV와 같은 영어 번역본도 있는데, 목적어도 제공하지 않지만 , 제가 이 구절 중 일부를 암기한 번역본은 목적어로 사랑을 사용합니다. 아시다시피, 학자가 되는 것은 때때로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쇼를 망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발견하면, 쇼를 망칠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잊을지 모릅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차원을 취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 아마도 저는 이 대화에서 사랑이 주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광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에베소와 그 주변의 신자들이 편지를 읽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이유가 있나?"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개인 서재에 성경 10권을 가지고 있고 이 구절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을 수 있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낀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혼자일 수도 있고 외롭지 않을 수도 있다. 두 가지 다른 것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깊이,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혼자 있을 수 있고, 내면적으로 만족, 기쁨, 평화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한 내용이며,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청원의 마지막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복잡한 표현이며, 우리는 그것의 본질을 실제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회중을 위해 일어나기를 요청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할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표현이 그들에게 집단적 지시로서 복수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한다면, 만약 그들이 이것을 모두 알고 있다면, 만약 그들이 이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면, 만약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강화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현존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적 인간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교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세워진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질 정도로 충만해지면, 그들의 말과 상호작용과 태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반영한다. 그래서 그들의 상호 상호작용은 불화와 다툼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의견 불일치와 좌절이 오는 곳에서도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바울은 여기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글로 쓴 후에, 그는 멈출 수 없었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중요한 찬양 중 하나가 된 것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서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제, 할 수 있는 자에게는, 그는 장애가 있거나 무능하지 않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그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성경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단어만 살펴보세요. 성경에 있다면 밑줄을 쳐도 됩니다.

할 수 있다. 그는 할 수 있다. ask 또는 think라는 단어에 밑줄을 칠 수 있다.

그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노란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힘에 따라.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힘에 따라.

그에게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것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이 찬송에서 우리는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저는 종종 우리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잘못이 없는데도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데도, 마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대우받고, 사회가 제한과 인식을 부과하고, 마치 그들이 인간 이하인 것처럼 정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에게는 그들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신의 능력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은 그가 창조물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신체적 어려움, 민족성, 인종, 키, 나이 또는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아시다시피, 어느 교회 세션에서 저는 청중에게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가르치는 세션에서 이 구절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지, 이제 묻고 싶은 모든 걸 써. 한 여성이 말했지, 한 페이지에만? 그리고 내가 말했지, 오, 한 페이지가 모자라? 오, 맞아.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야. 그녀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녀는 그것들을 어디에 두는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녀의 남편이 그 모든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기뻐할지 말지는 그녀가 결혼한 여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의 요점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을 생각해보세요.

십 대들에게 묻지 마세요. 그들은 온갖 종류의 스포츠카와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물건을 가질 테니까요. 그들은 존재하는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신이 그냥 당신에게 그것을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 찬송가에서 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 그리고 인간의 한계, 그리고 우리가 신의 위대함, 그의 지혜의 광대함, 그가 그의 백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의 창고의 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능력에 따라. 우리 안에서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이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분께서 그녀 안에서, 그 안에서, 그들 안에서, 그곳에서 그것을 행하실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당신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초반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 키워드에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매우 의도적이었습니다. 내면의 사람과 내면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십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앞서,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주입하여 그들에게 일어나서 하늘에 앉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을 은혜와 능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대로 집어 올려 사용하시는 로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제로 들어와서, 당신을 장비하고,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분이 부르신 일을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삶의 충만함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과 그 너머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에베소서 2:10).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능력을 활성화하고 이해한다면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찬양의 마지막 비문을 좋아합니다. 그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께, 교회에서 영광을 돌리소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존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예가 합당해야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1세기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eis , ton, ion, ton, Iona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쓸 때 가끔 나를 비웃습니다 . 영원히 영어로 번역하세요. 이 시대부터 다가올 시대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몸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를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교회 안에서 이 연합을 정말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만들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럼,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바울이 이와 관련하여 4장을 어떻게 시작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주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연합하여 건설합니다. 4장에서 바울은 시작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갇힌 자로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합니다.

온유와 온유함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으며, 평화의 유대로 영의 일치를 유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1장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시작하고 그들이 무언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그 부름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 그리고 4장의 세 구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교회에 연합을 증진하기 위해 삶을 시작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흥미롭습니다.

아니요. 그는 이미 통일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연합을 유지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2장에서 기억하십니까?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2장 19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었습니다.

3장, 하나님의 신비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공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의 지체입니다. 그 연합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체감입니다. 이것은 거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형제입니다.

당신은 잘 지내야 한다고 기대됩니다. 그러니 잘 지내세요. 아시다시피, 저는 형제 자매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싸우면 함께 모일 거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미국 에 오기 전까지는 형제 자매가 싸우면서도 서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폴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자란 형제 자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표현을 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 있었어요.

우리는 뜨겁고 뜨거운 논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앉아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마을에서 장례식이 열리면, 전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특히 고인이 그 논쟁의 일부라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체를 묻기 전에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바울이 그 개념을 가지고 , 당신은 평화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DNA입니다. 당신은 연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을 지키세요.

하지만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문장의 구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여기서 일부 부분만 살펴보세요. 이 구절에서, 특히 1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신학적인 성격의

문제를 다루는 3장에서 1절에서 3장으로 전환하고, 1절에서 16절까지의 일반적인 훈계로 넘어갑니다.

실례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그가 1절에서 3절까지 연합이라는 주제를 소개할 때, 그는 자신을 억제할 수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몇 가지 일반적인 훈계를 내리고, “연합에 대해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16절까지, 그는 편지에서 내내 이야기해 온 연합에 대한 매우 강력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1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갇힌 자로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합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위해 감옥에 갇힌 자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당신은 개인적인 시간에 이것을 매우, 매우 쉽게 넘깁니다. 그가 “나, 바울, 죄수”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편지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손을 등뒤로 묶고 있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부르심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따라 살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은 합당한 행보를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소명이며, 도덕적 행동과 지역 사회 상호 작용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다는 관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결코 초기 교회의 모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의된 가치, 규범, 윤리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들은 공동체 구성원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인지 정의하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4장에서 그 중 일부를 풀어서 책의 끝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만한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추종자로 불릴 만한 자로서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떤 의무와 함께 오는 부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 연합, 공동체에 대한 부름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와 평화로 걸으며,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평화의 띠로 영의 연합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에서 이 연합을 유지하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인내심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영의 일치로 간절히 지키면 됩니다 . 만약 여러분이 그 잔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 교회에서 실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영의 일치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명확해지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연합을 유지하는 수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바울이 이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것들 중 몇 가지에 다시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겸손이라는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는 사실 고대 그리스어에서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겸손은 비천함이나 낮은 정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 큰 말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종류의 자기 영광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미국과 영국에 대한 농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소개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국인의 태도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좋은 말을 하면,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인은, 제 이름은 세인트 사울 씨이고, 저는 영국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는 축구를 의미했고, 그냥 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사를 갔어요. 미국인이 왔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세인트 사울 씨입니다. 이 학교를 마쳤습니다.

나는 그 곳에 갔어. 나는 이 곳에 갔어. 사실, 나는 여기서 일해.

저는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벌고 , 이 모든 일을 합니다. 큰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United We Build 세션 의 이 부분을 마치면서 초기 교회에서 이러한 문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실제로 문맥에서 일어나는 일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 비천합니다. 마치 그들이 자신감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런 특성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뒤집어서 미덕으로 삼았는데, 자신들이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세상에 인상을 남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청중에게 인상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청중은 실제로 육체의 것들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억압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 감각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허풍쟁이가 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선택에 의해 겸손의 내면적 태도를 개발합니다.

문화적으로, 그것은 반문화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늘날에 잘 해낼 것이고, 영국과 잘 해낼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잘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스스로를 위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오만함을 감지하면 직장을 잃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직책을 가질 수 있는 전망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바울이 연합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말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의미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온유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미적으로 보기 좋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예의 바르고 온유하며 온화한 태도입니다.

프랭크 티머먼이 말했듯이, 겸손과 온유라는 두 용어를 합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위치를 인식하고 상황이 이런 자질을 보이는 것을 면제시켜 줄 수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은혜롭게 대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그 연합을 살리기 위해 핵심 요소로 제시한 핵심 자질 중 하나는 인내심인데, 이는 끈기 또는 끈기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압박을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신념의 문제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엄격한 압력을 받게 될 경우, 그들의 연합을 살아있게 할 것은 지치고, 통제력을 잃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내심으로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열심히, 연합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십시오. United We Build에 대한 이 강의를 요약하면, 바울은 그의 기도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포괄적인 본질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찬송가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량을 펼칩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몇 분 동안, 저는 그가 거기서 4장 1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겸손, 온유, 예의, 온유, 그리고 서로를 위해 인내심을 갖는 것으로 영의 일치를 유지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교회에 잠시 다녔다면, 내가 말하듯이, 성령의 열매가 당신 안에서 자라도록 허락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문제가 올 것입니다.

압박이 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살펴보고 바울이 교회에 대해 가르친 가르침 중 일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개인화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실임을 깨닫기 시작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허함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허락하고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실 도구, 사회 공학자가 되고, 온갖 불화와 다툼, 온갖 말다툼과 불화로 훼손된 우리 세상에서 다투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일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여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분이 부르신 자로서 평화를 모르는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의 대리인임을 보여주면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배우고, 바울이 서신에서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지적 발달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크리스천 생활에서 실제로 경험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옥 서신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5, 통일을 위한 중보, 에베소서 3장입니다.